소비패턴 고려 혜택 많은 쪽 선택하라

신용카드, 적립형 vs 할인형 … 어떤 것이 좋을까

현대 에디션2, 月 100만원 이상땐 포인트 1.5배

삼성카드3, 이통·면세점 사용 최대 5% 포인트

신한 큐브, 온라인쇼핑몰 등 月 최대 7만원 할인

국민 훈민정음, 학원·마트 등 5~10% 깎아줘

포인트 적립형이냐 할인형이냐. 최근 들어 신용카드사들이 카드 상품을 포인트 적립형과 할인형으로 단순화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객들의 선택도 신중해져 가고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과거 복잡한 상품군에 비해 보다 쉽게 카드 상품들의 혜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지만 전문가들은 자신의 소비 패턴을 고려해 신중하게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각 카드사들은 고객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현장 또는 결제일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포인트 적립, 할인, 포인트 및 할인 겸용 등 수백가지의 상품들을 출시했으나 요즘엔 포인트 적립형과 할인형 등 2가지로 상품군을 단순화하고 있다.

현대카드의 경우 지난해 7월 카드 라인업을 포인트·캐시백으로 전면 개편했다. 대표적인 포인트 적립 카드는 '현대카드M 에디션2'이다. 카드 사용시 가맹점에 따라 0.5~2.0%의 기본 M포인트가 적립되며, 월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기본 적립률의 1.5배의 포인트가 쌓인다.

반면, 현대카드 '제로'는 전월 실적이나 할인 한도, 가맹점 제한 없이 사용액의 0.7%를 할인 청구한다. 음식점과 대형할인점, 편의점, 커피전문점에서는 0.5% 포인트 추가 할인 혜택도 준다.

삼성카드의 경우 포인트 적립률이 높은 카드로 '삼성카드3'을 꼽을 수 있다. 이동통신, 면세점에서 사용할 경우 최대 5%의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으며, 학원이나 병원, 여행업종의 경우 최대 2%, 그외 일반 가맹점에서는 최대 1%를 적립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4'는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0.7%의 기본 할인을 제공한다. 1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1% 할인이 적용되며, 영화관에서 1만원 이상 결제시에는 2500원을 할인해 준다.

신한카드의 경우 '하이포인트카드 나노'와 '큐브'를 대표적인 적립과 할인 카드로 꼽을 수 있다.

하이포인트카드 나노는 고객이 원하는 업종과 가맹점을 직접 지정해 해당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5%까지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큐브는 할인점, 온라인쇼핑몰, 음식·주점 등 10대 업종 중에서 최대 5개 업종을 선택해 이용금액의 5%, 매달 최대 7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사 적립·할인 비교

카드사	포인트 적립·할인 혜택
현대 에디션2 현대카드 제로	가맹점 따라 0.5%~2% 기본 포인트 적립 사용액 0.7% 할인, 음식점·편의점 0.5% 추가 할인
삼성카드3 삼성카드4	이동통신·면세점 5% 포인트 적립 모든가맹점 0.7% 기본할인, 영화 1만원 결제 2500원 할인
신한하이포인트 신한큐브	원하는 업종·가맹점 지정 사용 5%포인트 10대 업종중 5개 업종선택 이용 금액 5% 할인
국민 훈민정음 국민 와이즈	업종별 5~10% 할인 혜택 교육·쇼핑 등 3대 생활밀착 영역 5% 포인트
롯데 데일리 롯데 DC슈프림	매일 이용객 기준 최대 2% 포인트 적립 전월 이용금액따라 최대 10% 할인

국민카드의 '훈민정음' 카드는 학원, 대형마트, 인터넷쇼핑, 커피전문점 등 업종별로 5~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와이즈카드는 교육, 쇼핑 등 7대 생활밀착 영역 가운데 매달 가장 많이 쓴 3대 영역에 대해 최대 5%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롯데카드도 매일 이용액 기준으로 최대 2%의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롯데 데일리카드',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10%까지 할인해 주는 'DC 슈프림카드' 등의 상품을 갖추고 있다.

하나SK카드도 많이 사용하는 업종에서 최대 2% 적립을 해주는 '스마트 포인트 카드', SKT 통신비 최대 1만5000원 할인 등을 제공하는 '하나SK 클럽SK카드'를 대표적 포인트 및 할인 카드로 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카드상품 기획자들은 무엇보다 카드 사용자들의 소비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포인트 적립과 사용에 익숙한 사용자들이라면 포인트 적립형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 특정 업종에 높은 포인트를 제공하는 상품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면에 카드 결제시마다 일일이 적립률에 신경쓰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되는 소비자는 할인형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포인트 적립형 카드는 남성보다는 여성, 중·장년층 보다는 20~30대의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객은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에서도 여러 장의 적립카드를 사용하는 등 포인트 활용에 익숙한 편이다.

다만 포인트 적립형 카드 사용자들은 포인트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즉 포인트 발생일에서 5년이 경과하면 포인트가 소멸되는 만큼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소멸된 카드 포인트가 지난해에만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과 2012년에도 각각 1100억원, 1300억원의 포인트가 유효 기간 만료로 소멸됐다.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할인이든 적립이든 더욱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자"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소비패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2분기 실적개선주 관심… 2000포인트 안착 고비

지난주 외국인은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전혀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거래소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등 업종대표주를 중심으로 순매수를 지속하였다. 하지만 주후반 프로그램 비차익매도가 증가하며 코스피지수는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시장은 5일 연속 장초반 상승 출발하며 반등을 시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지속되면서 대부분 업종에서 약세를 보였다.

지난주 1분기 실적발표가 대부분 마무리 됐다. 과거 2012~2013년의 경우 어닝서프라이즈 기업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전에 먼저 상승하고, 실적 시즌인 5월에는 발표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실적 발표 이후 실적발표의 결과에 따라 주가 반응이 확연하게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적발표 이후 개선된 실적을 발표한 그룹은 주가가 상승했고, 실적쇼크를 보인 그룹은 실적 발표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애널리스트의 실적예상치에 따라 선반영 되어 움직이는 과거패턴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국 지속되는 실적불안 속에서 시장참가자들은 기업실적 예상치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제 2분기의 중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다. 실적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으므로 향후 시장대응 또한 실적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23일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1분기 순이익증가율을 2.7%이다. 3년 만에 처음으로 1분기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예년에 비해 대형주의 실적 쇼크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형주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고 있지만 2분기 실적 예상치가 공격적으로 상향 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까지 추정치에 따르면 2분기 실적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치가 있는 170개 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 실적 예상치를 집계해 본 결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순이익 기준으로는 20% 수준의 증가가 예상된다. 순이익의 경우는 변동성이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환율 등의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작년 2분기에 비해 나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점은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 이익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주는 6.4 지방선거일과 현충일에 거래소가 휴장해 거래일수가 적다. 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여부와 기관의 순매도 강도에 따라 2000포인트 안착을 위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적개선이 기대되는 업종 대표주와 중장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보통주와 가격차가 큰 우선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아 보인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기업 세무조사 자료제출 부담 줄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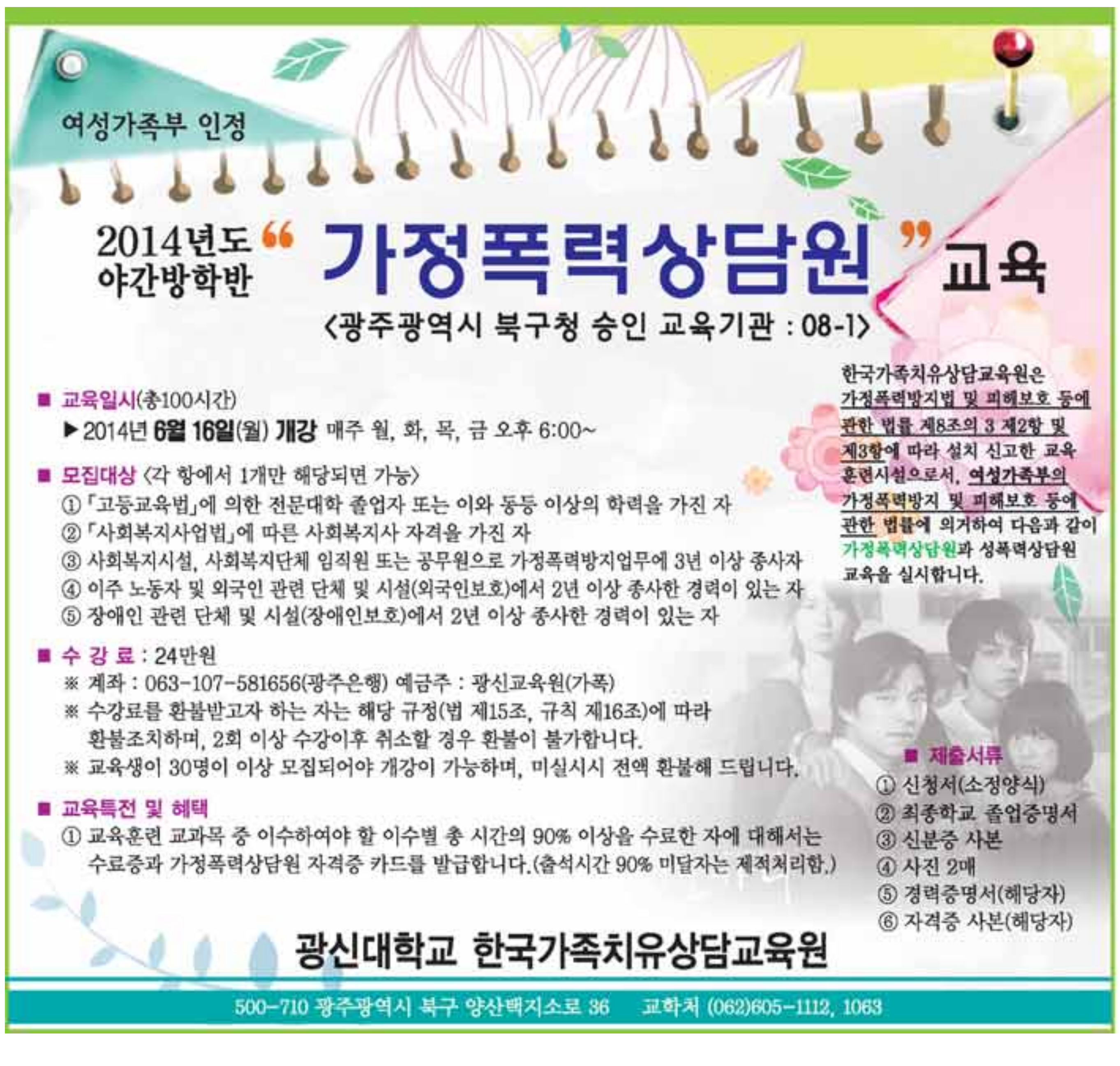
국세청, 부당과세 조사팀 운영

앞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자료 제출 요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를 마친 뒤 추징세액을 통보할 때 조사 내용과 세액 산출 근거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인·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 전문가 등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합동 선정회의를 거쳐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과제'를 선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선정된 과제는 무리한 세무조사 지양 등 세무조사 분야 3개, 중소기업 타인명의 등재 주식 실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등 신고·납부 분야 3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확대 등 권익보호 분야 2개, 납세 서비스 분야 2개로 구성됐다.

우선 국세청은 무리한 세무조사를 없애고자 세무조사 종결 전 부당 과세가 없는지 사전 검증하는 조사심의팀을 운영하고, 무리한 과세로 납세자의 불복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나 신고 내용 사후 검증 시 장부나 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세무조사시 자료제출 요구지침을 마련하고 조사팀의 자료 요구 및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중복 요구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표준 재무제표의 항목이 기업 재무제표와 달라 신고 때마다 다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 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국세상담 서비스(☎126) 폭주시 콜백 서비스 제공, 현재 8개로 분산된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를 통합, 과세자료 처리기한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